

미래농업 농가·마을버스 찾아 '현장 소통'

우범기 전주시장, 화전동 애플망고 재배농가·팔복동 마을버스 차고지 방문 주요 사업계획 점검

우범기 전주시장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미래농업 현장과 주민들의 발인 마을버스를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 시장은 앞서 지난 11일부터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주요 핵심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이어오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27일 화전동 애플망고 재배농가와 팔복동 마을버스 차고지(덕진구 추천로 427) 등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센터와 대중교통본부의 신년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우 시장은 먼저 화전동에 위치한 1.848㎡ 규모의 애플망고 재배농가를 방문해 기후변화 대응 과수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전반적인 재배·유통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또, 농가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아열대과수 재배에 도전한 농가를 격려했다.

우 시장은 또 농업기술과 2층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올해 농업기술 분야 신규·역점사업으로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27일 주민들의 발인 마을버스를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전주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육성 △학교·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및 친환경농업 육성 △청년농업인 성장기반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 시장은 이어 팔복동 마을버스 차고지를 찾아 대중교통본부의 신년 주요업무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추진되는 △전주역사 개선사업 △전주 기관대로 BRT 도입 △쾌적한 버스승강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우 시장은 이에 앞서 마을버스 바

로온' 조촌40번(월드컵경기장→고잔) 노선에 탑승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재 20개 노선 14대가 운영 중인 마을버스 '바로온'의 운영현황과 향후 확대 도입 계획,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아열대과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물을 발굴하고,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농업의 경쟁력이 바로 전주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전주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의견을 새겨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역에서는 현재 만강류와 애플망고, 구아바, 공심채, 그린빈스 등 5가지 아열대작물이 10개 농가, 2.6ha의 규모로 재배되고 있으며, 시는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재배 규모를 5ha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중인 마을버스 '바로온'의 경우 연간 약 40만 명이 이용하면서 농촌·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발이 돼주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민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2월 7일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이용자 모집

전주시는 오는 2월 7일까지 '2023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참여할 신규 이용자 2,270명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이용권(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는 올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시정형)와 정신건강도달케어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부터 최대 1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와 EYE1004건강두드림 서비스의 선정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전자바우처를 활용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가격은 정부지원금(전자바우처)과 본인부담금으로 합산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용자 93.6%가 서비스 이용에 만족감을 나타낸 바 있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아동과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에 해당하는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426년 역사' 기령당 경로당 찾아 새해 인사

대한민국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 우범기 전주시장, 건강·행복 기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7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기령당 경로당(당장 이상철)을 찾아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426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기령당은 예로부터 전라관찰사나 전주부윤(현 전주시장)이 부임 후 가장 먼저 찾았던 곳으로, 우 시장은 이날 기령당 회원들과 계묘년 새해 인사를 기원하며 덕담과 세배를 나눴다.

이상철 당장은 "시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르신들이 활기찬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령당 중심으로 다각적인 복지정책에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령당은 전주의 역사와 문화 창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서 "이곳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해 인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양경숙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김두봉 노인회 전북연합회장, 전영배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김영구 노인회 명예회장,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임익준 완산구청장, 박종진 완산동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주시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했다. /김영태 기자

"공사현장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준수하세요"

완산소방서, 불티 화재 등 주의 당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신속 공사장 용접 불티에 의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도내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는 총 34건으로 완산구·임실 지역은 4건이 발생하였는데, 7월에 완산구 중화산동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용접 불티 화재로 전기배선 등 일부 외벽 가림막이 소실되고 1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사례가 있다.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주변에 쌓여 있는 물건 등 가연물에 접촉 시 쉽게 화재로 확대되므로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 작업 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사장 작업 안전 수칙으로는 용접 등 화기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작업장 주변에 마른모래, 용접 매트 등을 비치 △작업자 개인보호장

비 착용 △작업장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 조치 △용접작업 중 유독가스 존재와 산소 결핍 여부 지속 감시 △용접 가스 실린더·전기동력원 등은 외부에 비치 등이다.

'전라북도 화재 예방 조례'에 따르면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 작업을 하려는 특수장소 관계인은 안전 감독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안전 감독자는 작업장 주위의 가연물품 제거, 안전시설 정상 작동상태 유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이 화재 예방 방법으로 옮겨가면서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화재 발생 여부 및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장수 완산소방서장은 "무엇보다 용접작업을 하는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청년소통공간 '비밀' 4곳 운영

전주시, 청년 회의·정보 공유 등 네트워크 활동 공간 무료 대관

전주시가 올해도 마땅한 모임 공간이 없거나 대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무료로 소통공간을 빌려주기로 했다.

시는 전북동 교육문화회관 인근 '차차'(1호점)와 전주대학교 인근 '선셋'(2호점), 서부신시가지 스페이스코워 전북도청점(3호점), 덕진동 전북대학교 인근 르하임스터디카페(4호점) 등 4곳을 청년소통공간 '비밀'로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청년소통공간 '비밀'은 만18~39세 청년들이 창업과 취업 등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회의와 모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전주시와 카페·공유오피스 등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의 협약을 통해 청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소통공간에 전주대 인근 '선셋'과 전북대 인근 '르하임스터디카페 전북대점'이 신규 지정돼

대학생 등 청년들의 접근이 편리해졌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이용 하루 전까지 전주 청년온라인플랫폼 '청정지대'(youth.jonju.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이용 시간은 모임 당 3시간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 없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비밀'은 문지르다, 버무리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역력스럽게 버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비비다'를 바탕으로, 경쟁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정보 교류 등을 통해 경험과 인목을 넓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영태 기자

